

# 물가는 예상대로, 인상 확률은 내려왔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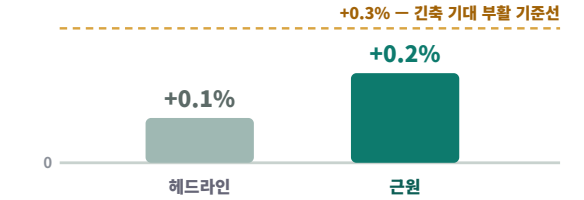
## — 9월 50%가 발표 뒤 40%로

한국시간 밤 9시 30분, 미국 7월 소비자물가가 나왔습니다. 연간 **3.4%**(6월 3.5%), 근원 **2.5%**(6월 2.6%). 전 항목 예상과 같았고 방향은 아래쪽입니다.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연준을 둘러싼 논쟁은 **인하가 아니라 인상**입니다. 발표 직전 반반이던 9월 인상 확률은 숫자를 받아든 뒤 **40% 근처로 내려왔습니다**.

### ① 7월 소비자물가 성적표 내 항목 전부 예상 부합

| 항목       | 예상    | 실제    | 6월    | 방향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헤드라인 전년비 | 3.4%  | 3.4%  | 3.5%  | 둔화 |
| 근원 전년비   | 2.5%  | 2.5%  | 2.6%  | 둔화 |
| 헤드라인 전월비 | +0.1% | +0.1% | -0.4% | 부합 |
| 근원 전월비   | +0.2% | +0.2% | 위축    | 부합 |

근원은 식품·에너지를 뺀 값. 예상치는 다우존스 집계 기준이고, 헤드라인 전월비를 +0.2%로 부른 집계도 있어 그 기준으로는 한 칸 아래입니다. 6월 -0.4%는 에너지가 한 달 새 5.7% 빠진 탓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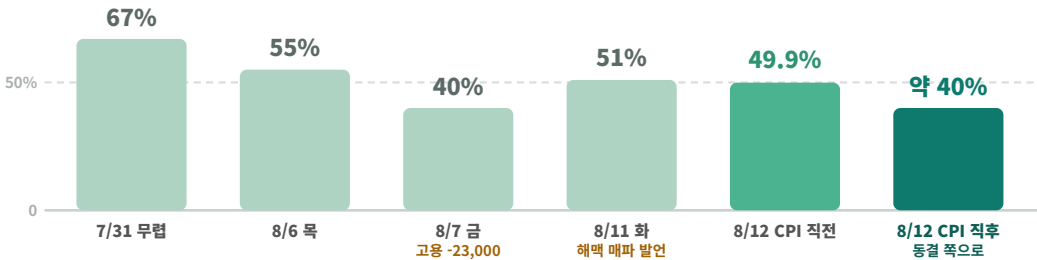


7월 전월비(세로막대). 트레이더들이 보던 분기점은 근원 월간 +0.3%였습니다. 그 위로 나오면 9월 긴축 기대가 되살아나는 자리였는데, 실제는 그 아래였습니다.

### ② 인상론이 많은 근거 세 개

| 무엇이         | 시장이 걸어둔 기준 → 실제로 나온 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원 월간       | 트레이더들이 본 분기점은 근원 월간 <b>+0.3%</b> 이상이었습니다. 그 위로 나오면 9월 긴축 기대가 되살아난다는 자리. 실제는 <b>+0.2%</b> 로 그 아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원 추세       | 연간 2.6% → <b>2.5%</b> . 한 칸이지만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용 (8/7 발표) | 7월 비농업 고용이 <b>-23,000명</b> . 시장 예상은 <b>8~10만 명 증가</b> 였습니다(집계기관별로 갈립니다).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었습니다. 물가가 아니라 이 숫자가 인상론의 발목을 먼저 잡았습니다 |

### ③ 9월 인상 확률 — 발표를 받아들이고 한 칸 내려왔다



9월 FOMC 인상 확률(세로막대, CME FedWatch). 8/7 고용이 마이너스로 나오자 40%까지 주저앉았고, 8/11 클리블랜드 연은 해맥 총재가 "2%로 돌리려면 여러 차례 올려야 할 수도 있다"고 하자 하루 만에 51%로 되돌았습니다. 발표 직전엔 동결 50.1% ↔ 인상 49.9%로 정확히 반반이었는데, 숫자를 받아든 뒤 **인상 40% 근처로 내려왔습니다**.

**갈렸던 두 시장이 이번 지표로 붙었습니다.** 어제까지 CME 금리선물은 인상 49.9%,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36%로 14%p 벌어져 있었습니다. CPI가 나온 뒤 CME가 40% 근처로 내려오면서 그 간극이 **4%p 수준**으로 좁혀졌습니다. 낮게 부르던 쪽이 맞았던 셈입니다. 다만 **인상 기대가 견힌 건 아닙니다** — 블룸버그는 채권 트레이더들이 9월 인상 배팅을 "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유지했다"고 전했습니다. 40%는 사라진 숫자가 아니라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. 우리는 금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
### ④ 발표 뒤 시장이 실제로 한 일

| 지표        | 움직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점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9월 인상 확률  | 49.9% → <b>약 40%</b> . 동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. "7월 CPI가 9월 동결 쪽으로 연준을 밀 만한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다"(빌 애덤스, 피프스서드) | 발표 후    |
| 미 증시 (장중) | S&P500 <b>+0.30%</b> , 나스닥 <b>+0.59%</b> , 다우 +0.11%, 러셀2000 +0.32%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/12 장중 |
| 달러인덱스     | 99.70으로 <b>-0.1%</b> — <b>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큰 재평가는 없었습니다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표 직후   |

지수는 미 정규장 장중 값(한국 00시 기준). 종가와 10년물 마감은 44호에서 채점합니다.

출처: 미 노동통계국(BLS) 7월 CPI(8/12 08:30 EDT) · 7월 고용보고서(8/7) · CME FedWatch · 폴리마켓 · 블룸버그 · CNBC·야후파이낸스 등 복수 보도 종합(한국 8/13 00:00 시점) | 확률은 시장 가격에 반영된 값으로 당사 전망이 아님 | 매수·매도 권유 아님 — 1/2쪽

⑤ 42호 채점 — 어젯밤 3사, CPI 무렵엔 이렇게 굳었다

| 회사     | 42호에 실은 값<br>한국 18:20 | CPI 발표 무렵<br>한국 21:30 전후 |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코어워브   | +17.5%                | +18.5% 이상                | 더 올라감 — 수주잔고 1,042억\$가 계속 먹힘 |
| 루멘텀    | +8%                   | +8% 이상                   | 유지 — 시간외 마이너스에서 돌린 뒤 그대로     |
| 슈퍼마이크로 | +8%대                  | +7.5% 이상                 | 소폭 식음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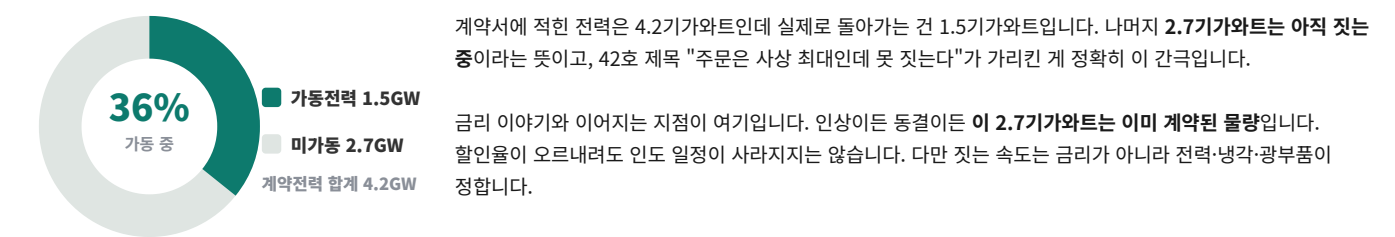
둘 다 정규장 개장 전 프리마켓 값입니다. 42호에서 "개장 후 달라질 수 있다"고 단서를 달았는데, 세 시간 동안 방향은 안 바뀌었습니다. 종가 채점은 44호에서.

⑥ 42호에 못 실은 숫자 — 슈퍼마이크로 다음 분기 가이드нс

| FY27 1분기 매출 가이드нс   | FY27 1분기 조정 EPS 가이드нс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컨센서스 116.8억\$       | 컨센서스 \$0.76           |
| 회사 가이드нс 145~155억\$ | 회사 가이드нс \$1.01~1.10  |
| 컨센서스보다 24~33% 위     | 컨센서스보다 33~45% 위       |

가로막대 · 컨센서스는 LSEG 집계. 42호에는 연간 가이드нс(650~720억\$)만 실었는데, 프리마켓 상승의 실제 연료는 이 분기 숫자였습니다. 지난 분기 매출이 가이드нс 하단에 그친 회사가 다음 분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.

⑦ 코어워브가 계약해 둔 전력 중 실제로 돌아가는 몫



도넛 · 코어워브 2026년 2분기 기준. 분기 중 가동전력이 500MW 늘었습니다.

⑧ 한국으로 이어지는 선

| 연결고리       | 확인된 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일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국내 증시      | 코스피 6,579.04(+3.68%)·삼성전자 255,500원(+6.68%)·SK하이닉스 1,504,000원(+5.54%) 마감. 이 장은 CPI가 나오기 여섯 시간 전에 닫혔습니다 — 물가를 반영하는 첫 거래일은 8/13입니다 | 8/12 |
| 가격 데이터 (앱) | DDR5 16Gb 현물가 52.467(+1.03%). DDR4 16Gb는 87.354로 같은 용량 DDR5의 1.67배 → 구형 품귀 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/12 |
| 대만         | TSMC 7월 매출 NT\$4,675.8억으로 월간 사상 최대(전년比 +44.7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/10 |

세 줄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. 물가는 인상론의 근거를 하나 뺐고, AI 데이터센터 지출은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고, 국내 증시는 이 물가 숫자를 못 본 채로 하루를 마쳤습니다. 셋이 서로 다른 시계를 쓰고 있어서, 내일 국내 장에서 어느 시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이번 주 불거리입니다.

⑨ 다음 확인 지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 8/13 새벽<br>코히런트(COHR) 실적 — 광통신 두 번째 채점. 루멘텀이 말한 "완판"이 업계 전체인지 한 회사 사정인지 갈림 | 목 8/13 국내 장<br>CPI를 반영하는 첫 거래일. 어제 +3.68% 급등분과 물가 숫자가 같이 반영됨 | 월 8/17<br>대만 7월 월매출 일괄공시 — TSMC 외 사들 전체가 같은 그림인지 | 금 8/21<br>관세청 8월 1~20일 잠정 — 41호의 반도체 비중 46.8% 유지 여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